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볼링대회

단체전 트라우마BC, 개인전 이호성 우승



지난 5일 포천 제일볼링장에서 개최된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볼링대회 단체전 1·2·3위 팀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포천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포천시볼링협회(회장 김형식)가 주관한 '제2회 포천시체육회장기 볼링대회'가 지난 5일 포천 제일볼링센터에서 선수 및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했다.

이날 경기에서 3인조 클럽대항전으로 치러진 단체전에서는 트라우마BC(석현호/채희숙/이호성)가 총점 2,667점으로 우승했고, 제일BC(최동식/전창규/윤종하)와 거터BC(이재운/신수용/박찬두)가 각각 2·3위를 차지했다.

또 남·여 구분 없이 4게임의 합산을 통해 순위가 결정되는 개인전에서는 이호성(트라우마BC) 선수가 전창규(제일BC), 강미경(무궁화BC) 선수를 따돌리고 954점으로 상대와 우승트로피를 획득했다.

볼링협회 이천순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는 예년보다 10여명 이상의 선수들이 더 참여해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볼링동호인들의 양성과 단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회는 순위별 수상자들에서 수여될 상품들을 참가자들에게 모두 나눠주기 위해 경품 추첨을 실시했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농구동호인 300여명 한자리에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박일서)와 포천농구동아리 STORM(회장 김동수)는 포천시 중·고등학교 농구동호인을 대상으로 "제1회 포천시생활체육회장기 청소년 길거리농구대회"를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오는 19일 개최한다. 관내 중·고등학교 농구동호인 60개팀 3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치러질 이번 대회는 관내 각 지역별간의 교류를 통한 생활체육 선수 발굴과 농구 동호인의 자변확대를 위해 마련된다.

이번 대회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참가 대상이며, 경기 방법은 3:3생활체육 길거리 농구대회 참가요령에 의거하고 모든 경기는 예선리그와 본선토너먼트로 진행하게 된다.

STORM의 김동수 회장은 "관내에는 농구동호인 및 학생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생활체육 농구인들의 운동공간 확보와 지역간 활발한 교류에 불포를 뜨는 계기로 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회는 그 동안 각 선별적으로 개최되던 대회를 하나로 묶어 개최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031)531-8888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 체육우수지도자 ⑦

경북중학교 사이클부 코치 이 정 일

“최고의 사이클 선수 육성”



경북중 이정일코치와 11명의 선수들이 청성공원에서 훈련을 통해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꿈나무 육성에 부푼 꿈을 안고 경북중 학교에 온지 5년이 지났습니다"

고 때부터 사이클을 시작했고 KT의 전신인 한국전기통신공사와 대표선수 생활을 한 후 현재 경북중 사이클부 코치로 있는 이정일(40)코치.

"성적위주의 선수육성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 코치는 선수들의 기초체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성장기에 있는 어린 선수들을 혹사시키면 선수로서 생명이 짧아져 운동을 오래 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경북중 사이클부는 김명중 감독과 이 코치, 11명의 선수들이 함께 호흡하고 있다.

선수들은 1학년이 4명(보현, 동선, 승현, 정대)이고 2학년 4명(기명, 창용, 민욱, 정은), 3학년 3명(상민, 종용, 인철)의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이 코치에 따르면 "지금의 선수규모는 전국에서 제일 작은 축에 속한다"며 "그래도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해 전국소년체전 등에서 순위권에 들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이 코치와 사이클부 선수들은 봄에서 가을까지는 의정부 벨로드롬이나 포천의 청성공원 및 왕방산 등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이 코치에 따르면 "관내에는 마땅한 훈련 시설이 없어 좋지 않은 여건 속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며 "관내에 사이클 경기장 등 훈련시설이 확충되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여건 속에서도 경북중 선수들은 매년 5명이 선발되는 경기도 대표 선발전에 2명이상 선발될 정도로 기량이 높다"고 말했다.

이 코치는 내년의 선발전도 낙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가 큰 힘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중학교 정일영 교장을 비롯해 자모

회(회장 남건우)와 가산면체육회(회장 원종호) 등의 지역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운동복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선수는 주로 50m달리기와 1,500m를 통해 선발하지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이클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지만 인식부족으로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로 경북중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타지역 학생들을 선발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이 코치는 어떻게 선수수급을 하기에 선수들에 대한 진로문제는 가능한 한 책임을 지고 싶어한다.

"상급학교로 진학을 시키는데 발 벗고 뛰고 있다"며 "관내 고등학교에 사이클부를 연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다"고 토로했다.

또 사이클의 장점에 대해 일일이 열거하는 열의를 보였다.

"이 운동은 자신의 평생직업을 마련할 수 있다는 데 매력 있다"며 "체력관리만 잘 하게 된다면 50세 이상까지도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력이 활성화되면서 선수들의 연봉 등 계속 상승하는 중이고, 향후 20년까지는 직업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코치는 선수수급 등 현안 엘리트 체육에 관해 "현재 많은 지원을 받고 있지만, 선수들의 실력향상과 수급에 체계적인 관리를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서 한다면 더욱 좋은 선수들이 선발되고 양산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이 코치는 "사이클을 아껴주고 관심 갖는 지역주민 및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사이클을 통해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인/터/뷰 포천생활체육협회의 백태욱 사무국장 임명

“내실있는 운영위해 노력하겠다”약속



백태욱 사무국장(직무대행)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회장 박일서)는 지난달 30일 신임 사무국장 직무대행에 백태욱씨(43.사진)를 임명했다.

백 신임 사무국장은 경기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와 포천테니스장을 관리하고 한내테니스장을 운영했으며 지난 2001년부터 포천시생활체육협의회 지도자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사무국장장으로 임명됐다.

백태욱 사무국장(직무대행)은 "생소한 분야가 아니고 해오던 일이니 만큼 책임감을 갖고 시작하겠다"며 "기준에 추진했던 부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체육 발전을 위한 구상으로는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아이들, 운동복 사줄래요”

경북중, 사이클부 후원 일일 찾집



지난 4일 경북중학교 어머니회원들이 경북중학교 사이클부 후원 일일찾집에서 다과 등을 준비하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다.

경북중학교 사이클부 자모회(회장 남건우)는 경북중 어머니회(이명미), 가산면 체육회(원종호)등과 함께 지난 4일 가산면 가산농협 옆 라이브II 카페에서 '경북중학교 사이클부 후원 일일찾집'을 개최했다.

남건우 회장은 "사이클이 비록 비인기 종목이지만, 최근 선수들의 전국대회 수상 등 지역위상을 높이고 있다"며 "이번 일일찾집은 지역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선수들을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이클부 자모회의 전임회장인 정승영씨는 "선수들에게 운동을 시키기에

는 학부모의 부담이 큰 운동이 사이클이다"며 "교육청 등에서 장비구입 등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선수들의 자체 부담도 적지 않아 행사를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에서 찾집운영 등 도움을 펼치고 있는 어머니회의 이명미 회장은 "많은 후원이 이루어져 선수들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작은 행

사지만 이번 일을 기회로 경북중 사이클부가 많이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북중 정일영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 사이클부 이정일 코치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중 사이클부 선수들은 현재 11명으로, 이정일 코치의 지도를 받으며 훈련하고 있다.

또한 이날 모금된 후원금은 선수들의 통계피복 및 장비구입 등에 지원돼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지역배기자 94spice@hanmail.net

2003 「자식경영대상」 수상

CLEAN 사업으로 - 사장님도 근로자도 웃었습니다!

CLEAN 사업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일터를 만드는 사업으로, **산업재해예방, 구인난 해소, 산업공동화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깨끗하게! 편안하게! CLEAN 사업으로 앞서가십시오! 1544-3088

- 무료시설개선지원 : 제조업 사업장에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안전설비, 작업환경, 작업공정 개선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드립니다.
- 안전보건기술지원 :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관리 기술을 지원해 드립니다.
- 건강도우미 운영 : 연 3회 전문가가 방문해 근로자 건강상담과 직업관련성 질환을 예방해줍니다.

※ 무료시설개선지원 사업은 매분기 첫째달(1, 4, 7, 10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lean.kosha.net

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